

# 12지 이야기(11) 개 - 인간의 오랜 친구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수필가  
cgj8509@comcast.net

지금으로부터 약 만년 전에 가장 먼저 가축이 된 동물이 개다. 사람이 개과 동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길들이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늑대는 복합형 행동 양태를 보여 훈련이 가능하고, 장난을 좋아하며, 가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잘 적응했다.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한 늑대들은 사람이 먹다 남은 것을 차지하는 경쟁에서 다른 동물들을 이겼던 것이다. 인류는 늑대에서 능한 사냥질과 뛰어난 경보 기능을 발견함으로써 번영할 수 있었다. 원시인과 늑대는 어울려 살면서 서로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개는 충직하다. 사람에게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며 은혜를 갚는 존재로 인정 받아, 우리의 설화문학에서 '의견 설화'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할 만큼 독특한 동물이다. 들불을 끄거나 심지어 호랑이를 물리쳐서 주인을 구하기도 하고,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받

명해주기도 한다. 전라북도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에는 의견비가 세워져 있고, 경상북도 선산군 해평면 낙산리 칠창마을에는 의구총이 잘 가꾸어져 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곳은 우리나라에 스물다섯 군데가 넘는다.

개 중에서도 흰개는 병이나 잡귀를 물리치고,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게 하며, 미래의 재난을 예고해준다고 믿었다. 하얀 강아지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는 저승 설화나 무속 신화는, 개모양 흡인형을 만들어 합장하는 풍속까지 낳았다. 조선시대 여러 화원들의 그림이나 민화에서는 개가 순박하고 정다운 모습으로 묘사된다. 화조구자도나 흑구도는 나무 아래 개를 그린 그림으로, 도둑을 막아주는 상징이었다.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 토종개가 있다. 용맹하고 뛰어난 사냥 감각을 갖춘 대표적인 진돗개는 석기시대 사람들이 기르던 개가 진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혈통과 야성을 비교적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토착화한 우리 고유견이다.

그 개가 삼국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일본에는 지금도 진돗개의 후손들이 진돗개와 구별하기 어려운 모습의 명견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풍산개는 백두산 고원지대에



서 사냥꾼이나 화전민들에 의해 길들여져, 모습이나 용맹성이 진돗개와 비슷하다. 삼살개 있는 곳에는 귀신도 얼씬 못한다고 알려진 삼살개는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으며, 민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개띠의 사람은 영특한 두뇌의 소유자로, 흔히 종교나 철학 그리고 문학과 인연을 맺는다. 스승을 따르고 친구에게도 변치 않는 우정을 품으며,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봉사한다. 헌신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이 강하며 열정적으로 일한다. 너그러운 남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언행이 바르고 솔직하며, 주의 깊고 겸손하다. 반사회적이고 냉소적인 면도 있다. 참을성이 부족하여 곧잘 싸운다. 경계심이 강해서 방어적이며, 고집이 세고 심술 굵다. 스스로를 잘 괴롭히며 남을 부담스럽게 한다.

일상의 말 속에서 개가 천덕꾸러기나 미운 존재로 표현되는 걸 보면 아이러니컬하다. 성질이 고약하고 막된 사람은 개고기이고, 체면이 아주 엉망이 된 꼬락서니는 개꼴이다. 값어치 없는 죽음은 개죽음이고, 대중없이 어수선한 꿈은 개꿈이다. 사리에 맞지 않는 허튼 소리를 하면 개나발 분다거나 개소리한다고 한다. 있으나 마나 한 것은 개뿔이고, 사리에 어긋나거나 온당치 못하게 되어가는 판은 개판이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개 자만 갖다 붙이면 비하하는 말이 된다. 영어에도 개자식이라는 욕을 비롯하여 개를 비하하는 말이 많다. 만약 개들이 이걸 알면, 무슨 이런 지랄같은 경우가 다 있느냐고 틀림없이 따지고 들 것이다.

개를 기르는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잠도 잘자고, 체중도 늘지 않는다. 불안감을 완화시켜주고, 사랑이나 우정을 배우게 해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해서 정신적인 성장에 중요한 도구로도 쓰인다. 12년 안팎의 평균수명을 가진 개는, 귀여운 털복숭이 때 집에 데려오는 날 이미 십여 년 뒤의 죽음이 각인된다. 개의 죽음에서 어린 자식을 잃는 슬픔을 맛보는 사람도 많다.

개도 사람이 걸리는 병에 걸려 죽는다. 나이가 들면 관절염 당뇨병 심장병 암 따위의 병이 들고, 심신이 점차 쇠약해지며, 기억력을 잃는다. 중년의 나이가 된 개는 변화를 싫어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6~7세가 되면 걸으려는 멀쩡한 개의 뇌조직에서 알츠하이머병의 보충서



인 베타아밀로이드 미세반점이 발견된다. 마지막에는 1/3 정도가 '개 치매'에 걸린다. 이 숫자는 8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맞먹는다.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먹이를 먹이면서 기억 훈련을 시키면 개의 뇌에 그 미세반점의 침착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보고되었다. 인간의 오랜 친구에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사람의 알츠하이머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주인을 따르는 정성이 사랑스럽고, 문을 지키는 책임이 변함 없는 개를 두고 명문장가 이규보는 명반오문(命班五文)을 남겼다. 서슬 퍼런 무신들이 전황하던 고려 명종 시절에 붓 한 자루로 그들의 기를 꺾었던 것이다. "겉은 기름처럼 부드러우나 속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남의 약점을 염탐하면서 그 악랄함을 숨기고 있는 자가 웃음을 띠고 오거든 너는 짓어야 한다."

어린 아이는 어미가 못생겼다고 싫어하지 않고, 개는 주인이 가난하다고 떠나지 않는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는 속담은 귀천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 벌어서 주위사람도 돌봐주며 산다는 말이다.

임금이나 나라에 정성껏 충성을 다하는 것을 견마지로(犬馬之勞)라 하고, 개와 원숭이처럼 사이가 매우 나쁜 관계를 견원지간(犬猿之間)이라고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일에는 소홀하면서, 상관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나서서 잘난 체 떠드는 행동을 일러 못된 개 들에 가 짓는다고 한다. ▽

